

존경하는 DX KOREA 참가사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으며 그 성과에 아낌없는 찬사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은 육군협회의 신규 유사 전시회 추진과 무관하게 내년도 9월에 킨텍스에서 정상적으로 개최예정이며 지난 10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규모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되었으며 조선일보사와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 MICE 전문가,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획득 분야 자문그룹, 조선일보사를 중심으로 한 홍보위원회, 방위산업 및 군의 미래 발전상을 위한 학술세미나 준비위원회, 국내외 방산기업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밀도 있게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1. 12. 29일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국내외 기업 50여 개 사가 계약 및 신청을 완료하였고 국제관으로는 인도 국방부, 네덜란드, 불가리아, 파키스탄이 해당 국가 방산기업과 함께 참가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시 참가기업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 우리 방산기업이 희망하는 방산 수출 중점 대상 국가의 군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자 초청을 확대하여 K-방산의 수출세가 호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시 현지 생산을 희망하는 수출계약 조건이 보편화되고 있어 수출대상국 현지 방산기업을 초청하여 기술이전 또는 기술협력분야를 적극 토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과 교육, 생산시설 구축 등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육군의 지원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방산전시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오로지 방산 수출 지향의 테마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전시를 희망하는 전시품은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보다는 미래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신무기체계 또는 개발 중인 신기술과 R&D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합니다.

과거 행사 시에는 우리 군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현재 운용 중인 장비를 대거 전시하여 왔으나 과감히 축소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민 정서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군병력과 장비의 전시회 지원을 최소화하고 투입되었던 예산을 절감하여 해외초청 및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군은 물론 정부와 관련 기관 초청을 확대하여 참가기업들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재 DX Korea 2024행사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KOTRA 해외무역관과 협조하여 방산 바이어를 초청, 우리 기업과의 밀도 있는 현장 미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DX Korea는 국제인증 전시회로써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참가사의 참가비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신청 시 가산점 및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국제인증전시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참가 사의 조기신청 기간을 ‘24년 1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조기신청 시 8% 참가비 할인 혜택, 중소기업은 5%의 추가할인 혜택제공

이상과 같이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참가기업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수출 중심의 테마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회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 이사장 예) 육중장 김영후
주식회사 디펜스 엑스포 대표이사 박춘중